

The Lord was with Joseph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 39)

A Question of God's Goodness

2 weeks ago we left Joseph at the end of chapter 37 having been sold into slavery in Egypt to Potiphar — the captain Pharaoh's guard ... Last week we considered the graphic story of Judah & his family's moral decline & redemption by grace in Canaan over at least 2 decades.

Now the story comes back to Joseph as a young slave in Egypt. The two brothers present a massive contrast — Judah in his freedom rebelled against the Lord ... while Joseph in his slavery was faithful to the Lord. The dominant theme throughout this chapter that spans about a decade in Joseph's life is that *the Lord was with him*. In one form or another, the author repeats that fact multiple times in this chapter.

What we particularly see is that the Lord was with Joseph through each stage of life in that decade — from humiliation as a slave to success in the household; He was with him as he said no to temptation & With him no less when he suffered injustice in prison....

The questions; “do I believe that the Lord's sovereign grace remains in the trials as much as the triumphs?” Or when things go wrong, “do I start to think He is less than good....grow embittered & so leave myself more vulnerable temptation?” The Lord's particular purpose is that we would take heart that in Christ; the greater Joseph — He is always with us — He remains perfectly good as He weaves & achieves His sovereign plans.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

2 주 전 창세기 37 장 설교에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보디발에게 팔려나감을 보았습니다...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는 적어도 20 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가문에 도덕적 타락과 가나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두 형제의 큰 대비를 보게 됩니다...유다는 그의 자유 가운데 주님께 죄를 짓는 동안, 요셉은 자유 없는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앞으로 요 몇 년간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주된 주제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사실을 오늘 구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요셉 인생의 단계마다 함께하셨다는 사실입니다...낮아진 노예의 삶부터 그 집안에 총무가 되기까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결과로 부당하게 감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 뿐만 아니라, 환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주권적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아니며, 쓴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유혹에 노출 시킵니까? 이 구절을 통한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요셉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그의 섭리의 계획을 엮으시며 이뤄 나가실 때도, 온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With Joseph in Humiliation & the Rise of Success (1-6a)

v1, 'Now Joseph had been brought down to Egypt, and Potiphar, an official of Pharaoh, the captain of the guard, an Egyptian, had brought him from the Ishmaelites who had brought him down there.'

To make the immediate contrast b/w Joseph & Judah...the first verse has the same verb of their respective journeys that means 'to go down.' For Judah...he actively went down not only geographically but spiritually into the land of Canaan. For Joseph...he'd been taken 'down' — by the Ishmaelites to Egypt geographically ...but unlike Judah we see that quite the opposite occurred, spiritually...

In God's sovereignty He'd brought Joseph 'down' by humbling him as a slave.... to raise him up spiritually for works of service in Egypt.

v2,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became a successful man, and he was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caused all that he did to succeed in his hands. So Joseph found favour in his sight and attended him, and he made him overseer of his house and put him in charge of all that he had. From the time that he made him overseer in his house and over all that he had, the Lord blessed the Egyptian's house for Joseph's sake;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on all that he had, in house and field. So he left all that he had in Joseph's charge, and because of him he had no concern about anything but the food he ate.'

What stands out particularly in these verses is the concentration of the use of the personal name of God, 'Yahweh' — translated into English as LORD...5 times in 4 verses, then again concentrated in the last 3 verses of the chapter

노예의 삶에서 성공에 이른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과 유대의 직접적인 대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1 절에서는 요셉과 유대의 각자 여행 가운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매”라는 동사로 각자의 여정을 묘사함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 갔고, 요셉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영적으로 유대와 대비를 이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섭리 가운데 요셉을 낮아지게 하사 노예가 되게 하심은... 종살이 가운데 그를 영적으로 높이시기 위함 이었습니다.

2-6 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그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 가운데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Lord, 주님”으로 번역하는데, 4 절에서만 5 번 언급되고, 39 장 마지막 3 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After this chapter, the Lord's personal name only appears once more in the remainder of Genesis — in chapter 49 — where Jacob blessed his sons...It's to highlight the fact that the Lord was with Joseph in His personal, faithful, covenantal love— guiding him, & providing for him by His sovereign grace.

The Lord had ultimately organised Joseph's sale to Potiphar...& now through Joseph was blessing Potiphar's entire household. God's covenant promises to Joseph's great-grandfather Abraham were being fulfilled where in Genesis 12:3 the Lord sai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The Lord had turned Potiphar's heart to be so favourably disposed to Joseph that he didn't have a care in the world...except about what he might eat...But the situation was about to change dramatically with Joseph's coming temptation...

With Joseph in the Struggle of Temptation (6b-12)

v6b, 'Now Joseph was handsome in form and appearance.'

Back in Genesis 29:17, the same phrase is used to describe his mother, Rachel. Joseph — being her son had inherited this genetic trait. No words are wasted in Scripture — & when it says that Joseph was handsome in form & appearance...it not only reminds us that Joseph was Rachel's son, but it particularly sets up the scene of Joseph's temptation from Potiphar's adulterous wife.

39 장 이후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창세기 49 장에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입니다...결국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가운데 요셉과 함께하사, 그를 인도 하신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권적 은혜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고, 이제 이런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2:3 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라는 말씀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요셉을 호의 롭게 대하게 하였고, 그가 먹는 것을 재외하고 그 어떤 것도 요셉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시다...그러나 이제 요셉에게 다가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유혹 가운데 몸부림치는 요셉

6 절 후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29:17 절에서도, 이와 같은 문구로,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의 유전적 장점을 물려받은 것이고, 오늘 구절에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함은, 요셉이 라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V7, '(And) after a time his master's wife cast her eyes on Joseph and said, "Lie with me." But he refused and said to his master's wife, "Behold, because of me my master has no concern about anything in the house, and he has put everything that he has in my charge. He is not greater in this house than I am, nor has he kept back anything from me except you, because you are his wife..."'

Joseph showed remarkable purity in his faithful, self-controlled character. When we think about him in relation to Judah — the contrast between their characters couldn't be greater. In the new country Judah saw & took a woman.....3 times in 4 verses of the last chapter she conceived & bore sons.

Here, Joseph faces temptation from the powerful woman of the house as a young slave yet remains pure. His particular reason is firstly faithfulness to his earthly master... 'because of me my master has no concern'.

Most people maintain a moral standard when the eyes of an authority are on them...how many fall when that restraint is removed! May that never be a licence for our sin. May the awareness of the betrayal that sin is remain with us especially when no one is watching.

The second reason that's the particular foundation for Joseph's purity comes in Joseph's rhetorical question to her v9b, "How then can I do this great wickedness and sin against God?" With the thought of sinning against Potiphar came the understanding that such sin is against God.

7~9 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신실함 가운데 순수하며, 절제 할 줄 아는 그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런 요셉을 유다와 비교해서 생각해본다면, 매우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새 나라에서, 한 여인을 보고 품었으며...3 번이나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39 장 첫 4 절에서 언급합니다.

이와 반대로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권력 있는 여인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는 집 주인에 대한 충성도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대부분에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지켜볼 때에만 정직하다가,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그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눈이 없다고 해서 쉽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순결을 지킨 두 번째 이유가 9 절 후반부에서 그의 질문과 함께 나타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기라는 이해 가운데 이렇게 말함을 보게 됩니다.

It reminds us of Psalm 51:4 some 800 years later...of David's lament after his adultery ...'against you and you only have I sinned'. Well, of course David knew he'd sinned against Uriah & Bathsheba.

When we sin we not only wrong others....but in that we particularly offend God. Like David, Joseph understood the gravity of sin — as an horrific evil against the perfectly holy & gracious God.

Here's our particular defence against temptation — to hold fast to the Lord's loving kindness so that in the heat of the moment nothing could be more repulsive than to go against Him. In Joseph's response he reminds himself of the dreadful reality of what Potiphar's wife was proposing.

Cultivate the discipline now to be horrified by the damage sin can do to others & the dread of offending our perfectly loving God...so that when we're suddenly confronted, we will by grace have power to resist. Know also that we must not become complacent when God helps us overcome

v10, 'And as she spoke to Joseph day after day, he would not listen to her, to lie beside her or to be with her.'

Here we see Potiphar's wife use a variety of methods to get her way — persistence — trying to wear him down. A more subtle appeal at compromise 'to lie beside her' — & the more direct approach, 'to be with her.' We see, 'he would not listen to her'

이는 다윗이 성적 범죄를 범한 후, 그의 애통함을 기록한 시편 51:3 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물론 다윗은 그가 우리아와 밋세바에게 또한 죄를 범하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 또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는 완전히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큰 악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해 보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런 유혹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으로부터 도망칠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 간다면 끔찍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입히며,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십시오...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 하십시오

10 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끈질김 가운데, 요셉을 유혹하려 합니다. 이 여인은 일단 함께 있자고 요구하며, 동침하자고 까지 요구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여인의 말을 듣지 아니 합니다.

We think about this young man being trustworthy in day-day details of household management ... by God's grace, such character had steadily grown.....
His response to being a victim of his brothers' hatred...was faithfulness to God.

Now when it came to being trustworthy in the greatest matter of the most important part of Potiphar's household — his wife — Joseph was utterly faithful.

It certainly matters the way that we go about conducting ourselves in small matters.
Paul Tripp: "The character of a life isn't set in ten big moments. The character of a life is set in ten thousand little moments of everyday life. It's the themes of struggles that emerge from those little moments that reveal what's really going on in our hearts."

If we don't have godly integrity in the small details of life what we watch — we necessarily build ungodly character that will leave us more vulnerable when greater temptations come...

The Lord was with Joseph amidst the testing. How easily he could have fallen — he could have been consumed by anger at his lot — disheartened at life in a foreign country — at the bottom of the society after having suffered great evil at the hands of his brothers. Where would that have left him spiritually with the evil advances of Potiphar's wife?

Where does any resentment towards God's sovereignty over our circumstances leave us but more vulnerable to the devil's schemes? To believe the devil's lies that God is less than good is to open ourselves to sin.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일을 돌보는 총무의 일을 신실히 행하였고, 그 가운데 요셉은 성장합니다. 형제들의 미움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의 총무로서, 집안 모든 일을 그 신실함 가운데 살필 때,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의 아내에 관한 일에서도, 그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큰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실함이 왜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Paul Tripp 은 이런 맥락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 성품은 10 개의 큰 순간의 사건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만개의 작은 순간의 사건들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삶의 작은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다면...결국 이는 경건하지 못한 성품을 형성하며, 나중에 더 큰 유혹이 올 때,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 주님은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그는 아주 쉽게 넘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타지에 노예로 팔려 와서,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는 분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처럼 유혹해 온다고 하면, 그는 충분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상황에 분노하기 보다는, 신실함 가운데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가 분개하고 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더 큰 죄에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 Joseph desired above all to honour the Lord — is that our chief desire also? It was Joseph’s defence — especially when temptation reached its maximum....

V11, ‘But one day, when he went into the house to do his work and none of the men of the house were there in the house, she caught him by his garment, saying, “Lie with me.” But he left his garment in her hand and fled and got out of the house.’

Up to now her adulterous appeals had been verbal...but now she saw Her moment in the isolation of an empty house to get physical... Joseph was about 27 by this stage. As a young virile man he would have naturally been more vulnerable to the wicked woman’s advances...but he showed godliness & wisdom that sets him apart even from many of the great characters in Scripture.

More than 800 years after Joseph...in Proverbs 5:3, Solomon said ‘the lips of a forbidden woman drip honey,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but in the end she is bitter as wormwood, sharp as a two-edged sword.’

Joseph did just what the Apostle Paul would also > 1800 years later command Timothy to do, 1 Tim 2:22,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and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and peace, along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A flaw that often stops us fleeing evil desires is our pride. When we’re proud, we think we’re strong — that we’re mature — that we can handle it — that we aren’t like others who fall — but that’s foolish ...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였고,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같이 하나님을 높임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인가요? 이는 또한 큰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를 지키는 방어막이었습니다.

11~12 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지금까지 보디발의 아내는 말로 요셉을 유혹하였다면, 이제 그녀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틈타,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요셉의 나이는 27 세 정도였을 것이고, 젊고 혈기 왕성한 남자로서, 이런 여인의 유혹을 참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장소로부터 도망침으로, 경건함과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요셉 이후 800 년이 지난 시간쯤에, 잠언 5:3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썩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이런 요셉의 행동은,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과 동일한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딤후 2: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잘못된 정욕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자만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만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기를, 나는 의지가 강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The devil would deceive us into thinking we won't fail. Our own flesh tempts us to self-reliance. The world paints such evil as appealing. Proverbs 16:18,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Joseph called sin as it is — great wickedness & was humble enough after prolonged successful avoidance simply to flee ... may we be humble to flee temptation....

With Joseph in the Hardship of Injustice (13-23)

v13, 'And as soon as she saw that he had left his garment in her hand and had fled out of the house, she called to the men of her household and said to them, "See, he has brought among us a Hebrew to laugh at us. He came in to me to lie with me, and I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as soon as he heard that I lifted up my voice and cried out, he left his garment beside me and fled and got out of the house."

See how manipulative she is — seeking to align herself with the other slaves against her own husband — 'he has brought' Joseph 'among us....to laugh at us' She tries to unite them against Joseph through racism — highlighting his ethnicity, 'a Hebrew' She says the same thing to Potiphar.....

V19, 'As soon as his master heard the words that his wife spoke to him, "This is the way your servant treated me," his anger was kindled. And Joseph's master took him and put him into the prison, the place where the king's prisoners were confined, and he was there in prison.'

사탄은 마치 우리가 실패 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런 악들은 매우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포장하여 나타냅니다. 그러나 잠언 16:18 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요셉은 사악한 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았고, 그는 여러 유혹을 계속해서 거절해 왔다는 사실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 가운데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우리 또한 겸손함 가운데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기 바랍니다.

불의 가운데 고난 겪는 요셉

13~15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교활하며 교묘한지 보십시오...”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함은 집안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편을 만들고, 이런 상황의 틈을 요셉을 집으로 데려온 남편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을 히브리 사람으로 언급함은, 민족성을 강조함으로, 다른 민족인 요셉을 차별하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19~20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She knew how to manipulate the men in her life to get her way...with the exception of Joseph...

Though perhaps since Potiphar in all his power put Joseph in prison, instead of executing him shows that he suspected his wife was lying.....but lacked integrity for justice.

V21, 'But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showed him steadfast love and gave him favour in the sight of the keeper of the prison. And the keeper of the prison put Joseph in charge of all the prisoners who were in the prison. Whatever was done there, he was the one who did it. The keeper of the prison paid no attention to anything that was in Joseph's charge,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And whatever he did, the Lord made it succeed.'

Here we see that the Lord was with Joseph in the injustice of prison as much as he was in Potiphar's household.

Cowper, 'judge not the Lord by feeble sense.....'

The chapter ends in the same kind of way that it opened — with the rise of Joseph's success in another Egyptian house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 showed him steadfast love*.

Immanuel now & Forever

The Lord was with Joseph honing his character in the humiliation of slavery, to remain true in worldly success...to shine in the struggle of temptation & the injustice of prison.

Thomas Brooks, "The main reason why men dote upon the world, and damn their souls to get the world, is, because they are not acquainted with a greater glory!"

보디발이 요셉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넣음은,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의심해서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이는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21~23 절 “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요셉과 함께하셨기에, 요셉이 형통함을 누렸다는 사실을 나타냄으로, 39 장의 시작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함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수치스러운 노예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서는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의 성품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형통함 가운데 서도 진실하고, 유혹과 부당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밝히 빛나게 하기 위해...

Thomas Brooks.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얻기 위해 자기 영혼을 파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더 큰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Joseph knew the Lord's glory is greater than anything the world could offer. He shows us the difference that 'Immanuel' — 'God with us' makes

Joseph points us to Jesus — God with us — who Hebrews 4 says was tempted in every way yet without sin...Who learned obedience through suffering...Who says,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Matt 28:20)

In Christ, God is with us & God is for us. Since that is always the case....who or what could be against us?

요셉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영광 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 줍니다.

요셉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시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그리고 이런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20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무엇이 혹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 끝 -